

‘디지로그’ DPG쇼

디지털프린팅의 꽃, DTP 특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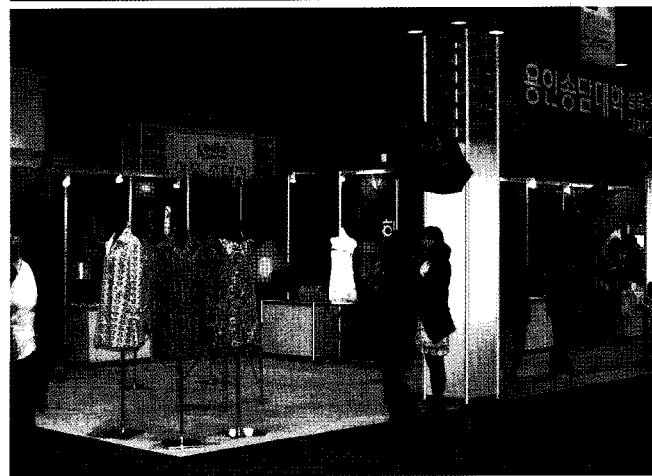
올해로 6회째로 4월 9일부터 12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2009DPG쇼에 DTP특별관이 조성된다. 해마다 꾸며졌던 특별관이긴 하지만 평소와 다른 새로운 면모를 보여줄 것이라는 게 이번 전시회를 기획, 진행하고 있는 COEX 전시1팀의 설명이다. 관계자는 일부 관람객들의 “실무적인 면에서의 적용과 다소 거리가 있어 보였다”거나 “분명 변화한다는 것은 알겠지만 그 변화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등의 반응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년에 비해 보다 명확하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는 특별관이 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상용화된 기술인 디지털 날염(DTP, Digital Textile Printing)은 잉크젯 분사 방식을 이용, 디자인된 패턴이나 이미지를 직접 원단에 인쇄하는 것을 말한다. 섬유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재에 날염할 수 있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지의 조색 및 배합을 할 수 있어 일반날염과 비교할 수 없는 색 표현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또한 제도, 제판, 염료배합 등 공정을 생략하여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해 빠르게 변하는 유행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한편, 국내 디지털 날염 시장은 주로 교육 및 연구용으로 일부 선도적인 업체에서 디자인 개발용으로 활용되어 왔다. 업계에서는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그 확산이 더디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에 걸쳐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관련 산업에 대한 관심 제고 등에 따라 그 영역을 급속하게 넓히고 있으며 지난 2005년부터는 정부 주도로 디지털날염기술 국산화를 본격 추진함에 따라 국내디지털프린팅기기의 국산화율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그 동안 DPG쇼는 지난 2006년부터 DTP작품관을 구성, 디지털 날염 활용 분야를 소개, 관람객들에게 디지털 날염분야의 발전가능성을 제시해 왔으며 지난해 DPG쇼에서는 염색기술연구소, 한국텍스타일협회, 용인송담대학 등이 참여하여 학생 및 디자이너의 작품 등을 전시해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



“디지로그로 디지털의 다양한 발전 가능성 선보일 것”

용인송담대 섬유패션디자인과의 전창호 교수는 10개 내외의 대규모 부스를 사용하면서 수년째 계속해서 DPG소에 참가하고 있다. COEX와의 긴밀한 산학협력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적지 않은 규모의 부스로 해마다 참가하는 것은 전시회 기획에서 준비, 출품에 이르기까지 결코 만만한 과정은 아니다. '디지로그'를 2009년 DPG소의 테마로 삼은 전창호 교수에게 이번 DTP특별관 참가의 의미와 기획의도 및 향후 디지털프린팅의 전망에 대해 들어보았다.

이번 전시회의 참가 의의와 전시의 주 컨셉에 대해 말씀해주시지요.

2009년 DPG소 DTP특별관에 참가하는데 있어 행사의 방향성 및 디지털의 다변화를 부각시키는 것을 큰 흐름으로 잡고 있습니다.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것도 빼 놓을 수 없을 것 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획전시의 주제는 디지로그(Digilog)로 잡고 있습니다. 아날로그의 다양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하여 다른 산업분야(Digital)와 접목하여 디지털의 다변화를 추구하는 컨셉을 제시할 것입니다. 디지로그의 특성과 의미 그리고 이미지를 '아날로그'와 접목한 아이디어를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시장 개척과 디지털의 또 다른 분야를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디지로그가 실제 업무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디지로그는 보다 확대된 개념의 디지털상품을 뜻합니다. 복제와 대량생산이 가능한 제품인데 예를 들면, 디지털이 가지는 다양한 의미들을 아날로그 상품과 접목시켜 대량생산이 가능한 제품을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편성, 획일성, 첨단성 등의 다양한 주제를 표현하는 상품을 제작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아날로그의 장점인 작품성과 창작성을 살리면서 그 한계점이라고 말하는 수작업적 작품, 재료의 한계성, 낮은 생산성을 갖는 종래 기법 등에서 상품성 및 판매를 위주로 한 제품, 첨단과 IT를 이용한 제품, 복합성 및 다른 재료와의 접목이 가능한 제품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디지로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인쇄가 갖는 다양한 장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데이터화 할 수 있다는 것과 물질의 영역을 넘나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미 DTP는 종이에 대한 인쇄는 말할 필요도 없이 금속, 유리, 도자기의 소재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또한 표면 질감을 시각적으로 실물에 가장 가깝게 표현할 수 있으며 이미 옥외광고 분야 등의 분야에서 그 위력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무수 인쇄를 하기 때문에 친환경성이 뛰어나고 작업공정이 생략되어 작업 시간 절약을 실현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대량생산에 제약이 있고 비용의 절감이 더 필요한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TP에서 디지로그는 기존 방식을 뒤집는 새로운 영역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